

# 광양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유치 나섰다

市, 교과부에 계획서 제출... 마동 일대에 철강·항만학과 등 2011년 목표

광양시가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유치 계획서를 지난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면서 광양만권내 산·학·관 협력체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유수대학 광양캠퍼스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은 오는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광양시 마동 일원 330천㎡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 대학은 철강·항만·화학·조선·IT·환경·에너지 등 광양만권의 산업체와 연계 가능한 미래발전 전략산업학과 등을 중심으로 정원 300여 명을 선발한 뒤 별도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교과부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연구중심대학은 국립 또는 사립대학을 분분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의 광양캠퍼스로 유치하되 규모와 지원방안, 학과개설 등은 광양시가 교과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양시는 이 대학이 글로벌 연구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학교부지 매입비, 커뮤니티센터 건물 설립비, 장학금, 기숙사비 등을 포함해 1천억원 수준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캠퍼스

가 들어설 광양커뮤니티센터와 주변 유원지의 대금 400억원도 대물비용으로 지원금에 포함시켰다.

황선범 광양시 총무국장은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설립의지는 품격있고 국제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광양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개발권 발전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대부분의 시민들과 정치인 등 모두가 대학 유치를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기대할 만할 결과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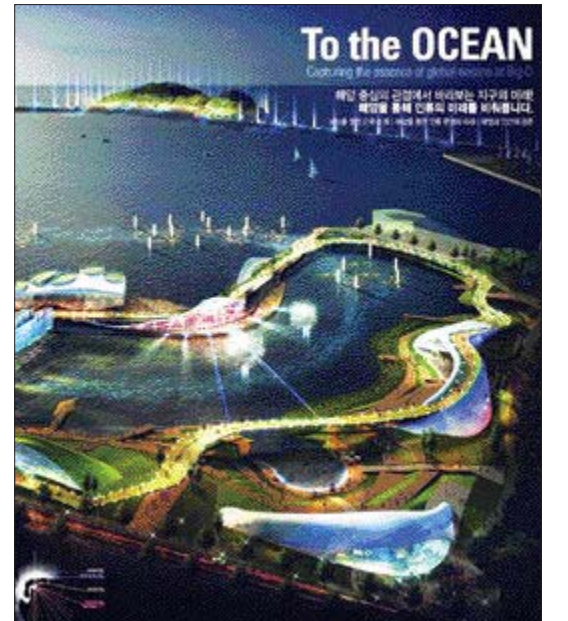
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발맞춰 지난 8월부터 교과부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설립을 추진해왔다.

교과부는 유치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으로 광양캠퍼스 설립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양시는 그동안 남해안 선벨트 남중경제권의 중심축으로서 지식과 기술을 집적할 수 있는 광양캠퍼스 설립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나, 순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순천시와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여수박람회 'Big-O' 당선작 선정

40여 응모작 중 우수 5개·가작 2개 설계·시설 등 일괄에 가산점 부여



전남도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엑스포 복합문화공간인 'Big-O(Big-Ocean)'의 콘텐츠 아이디어 국제 공모에서 우수작과 가작 등을 선정했다. 'Big-O'는 여수엑스포의 핵심시설로 전시·연출·이벤트·건축·조경분야의 전 세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 40여개 응모 작품중 우수작 5개와 가작 2개를 선정했다.

당선작들은 뛰어난 상상력과 최첨단 IT기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관람객에게 감동과 흥미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위에서 요구하는 해양문화 체험, 흥미로운 전시·연출·공연 등 이벤트적 요소도 잘 구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당선작들은 앞으로 예정된 'Big-O'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에 참여하며 3%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조직위는 기존의 기본계획에 이번 당선작들의 콘텐츠를 가미한 'Big-O'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내년 1월에 내고 5월께 사업자를 선정, 7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당선작 발표회는 28일 서울 현대빌딩 조직위 대회

의실에서 열린다. 박람회 주무대인 여수 신항 해상에 건립될 'Big-O'는 전시·연출·공연·영화·음악 등이 펼쳐질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축구장의 200배 크기인 145만㎡ 규모에 이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ykpark@



# 구례 봉북리에 중국 전통정자

결연 맺은 지주시 기증

구례군은 지난 23일 구례읍 봉북리 공설운동장에서 중국 전통정자 '지주정'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세워진 중국 전통정자는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안휘성 지주시가 건립·기증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구례군은 지난 달 19일 중국 지주시 평천호에 있는 섬 도화도에 한국정자의 백미(白尾)라 할 수 있는 장덕궁의 '애련정'을 본떠 만든 '구례정'을 건립·준공했다.

'지주정'은 면적 24㎡, 높이 8.6m 규모의 정자로 중국 북방식 황실문림과 수려하고 우아한 남방식 건축양식을 겸비한 대표적인 2층 팔각정이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 영산포농협 영농지도 효과 '톡톡'

나주배·친환경쌀 고품질 생산 150억 소득 올려

영산포 농협(조합장 박정현)이 지역 특산물인 '나주배'와 '친환경 쌀'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 다양한 지도사업을 펼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7일 영산포농협에 따르면 그동안 조합원들을 상대로한 지도사업 부분이 취약해 지난 2007년 보직공모를 통해 박석훈(47)씨를 영농지도 팀장으로 영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활발한 영농지도 사업을 펼쳐고

있다. 영농지도팀은 250여 명의 친환경 제작목반 10개를 신규로 조직, '인공수분용 화분'을 공급하고 자체브랜드인 '프리미엄 쌀'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을 보급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고품질 '나주배'의 경우 판매물량을 120억원으로, 친환경 '프리미엄 쌀'은 30여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박정현 조합장은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집중 육성한 게 효과를 봤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영농지원사업을 발굴, 조합원들의 소득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산포농협은 최근 농한기에 도 불구하고 나주배연구회와 품질관리원 나주출장소 등과 함께 내년 1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한 '배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기술교육을 실시, 호평을 받았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고흥군, 比에 에탄올 원료 해조류 양식장 확보

고흥군은 바이오(Bio) 에너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을 필리핀 현지에서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바이오 에너지(에탄올)는 우뚝가사리 등 해조류에서 발효와 농축, 증류과정 등을 거쳐 생산되는 연료로 이 과정에는 막대한 양의 해조류가 필요하다. 군에 의해 따라 최근 필리핀 보홀주를 방문, 협정을 맺고 1만ha의 양식장을 50년간 무상 임대하고 최대 10만ha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흥지역의 해조류 양식장 면적은 9천여ha이며 전남지역 전체는 6만5천여ha다. 군은 “보홀주를 선택한 것은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물류비용과 태풍피해가 적은데다, 사업을 추진하는 바이오시스템즈의 현지법인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시스템즈는 우선 150억원을 투입, 고흥만 간척지에 2011년까지 1일 4천ℓ 생산규모의 공장을 건립하고



2016년까지 2천억원을 들여 1일 40만ℓ의 에탄올을 생산하는 본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성장 동력사업의 하나인 해양 바이오 산업에 선정돼 오는 2020년까지 3천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 화순 산사마을 등 13곳 '행복마을'

전남도 내년 상반기 조성 대상지 선정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추진하는 행복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화순군 이서면 산사마을 등 도내 13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순천시 흥내마을과 나주시 신광마을, 광양시 관동마을, 담양군 나산마을, 화순군 모산·산사마을, 장흥군 봉덕마을 등이다. 또 영암군 영흥마을, 무안

군 강정마을, 함평군 사산마을, 장성군 자룡·한실마을, 완도군 남선마을 등도 뽑혔다. 그동안 행복마을 사업지 선정은 신청마을이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됐으나 이번부터는 공모제로 전환해 19개 신청마을 중 서면평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행복마을로 뽑힌 곳은 노후 불

량주택을 한옥으로 개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 4천만원과 융자금 3천만원을 가구별로 지원받는다. 해당 마을은 공공 기반시설비로 3억원을 지원받고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농촌마을 등 농어촌 마을가꾸기 사업도 우선해 실시한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6개 마을은 미비점 등을 알려주고 내년 하반기 공모에 재신청하도록 했다. /최권일기자 cki@

# '테라피 화순' 화순대표 브랜드로 확정

화순군 대표 브랜드인 '테라피 화순' 디자인(사진)이 최종 확정됐다. 화순군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테라피 화순' 대표 브랜드 개발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테라피 화순'은 백신공장, 전남대 대학병원 등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화순이 질병예방과 치료에 있어 최고 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만든 브

랜드이다. 디자인은 화순의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을 형상화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관광의 '블루 오션'을 찾아 의료(Medical)·체험(Experience)·녹색(Green)·농촌관광(Agricultural)의 머리글자를 딴 'MEGA'투어리즘을 실현하고자 하는 군의 비전을 담았다.

전원준 군수는 “앞으로 '테라피 화순' 브랜드를 통해 생명과 건강도시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전국 10대 살기 좋은 지역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정운수기자 unsu@



**결로곰팡이방출**  
건강과 풍족의 **월빙룸**으로

월빙룸과 결로방지 공사는 **곰팡이 제거/결로방지 공사**는 [주요매장지] 박 [주요매장지] 박

단반에 해결하세요!

511-0444, 010-6603-0405

**심야전기 보일러 온수기 마지막 설치 기회!!**

· 전액에서 심야전기사업률 균형을 유지 시킬수 좋은법 제정합니다.

· 심야전기 신청은 12월 30일까지 필수 **마지막 기회**입니다.

· 현재 최대 공급 권리는 20kw, 24평 지원됩니다.

심야전기신청에 바로 **신청하세요!** **나미엔 심우상사**